

# 시 분석

페르소나, 화자로서 '주체'

때, 김길녀

해질녘 여름 강에서 보았다

마른 땅 가까운 낮은 물결 속

치어들 총총,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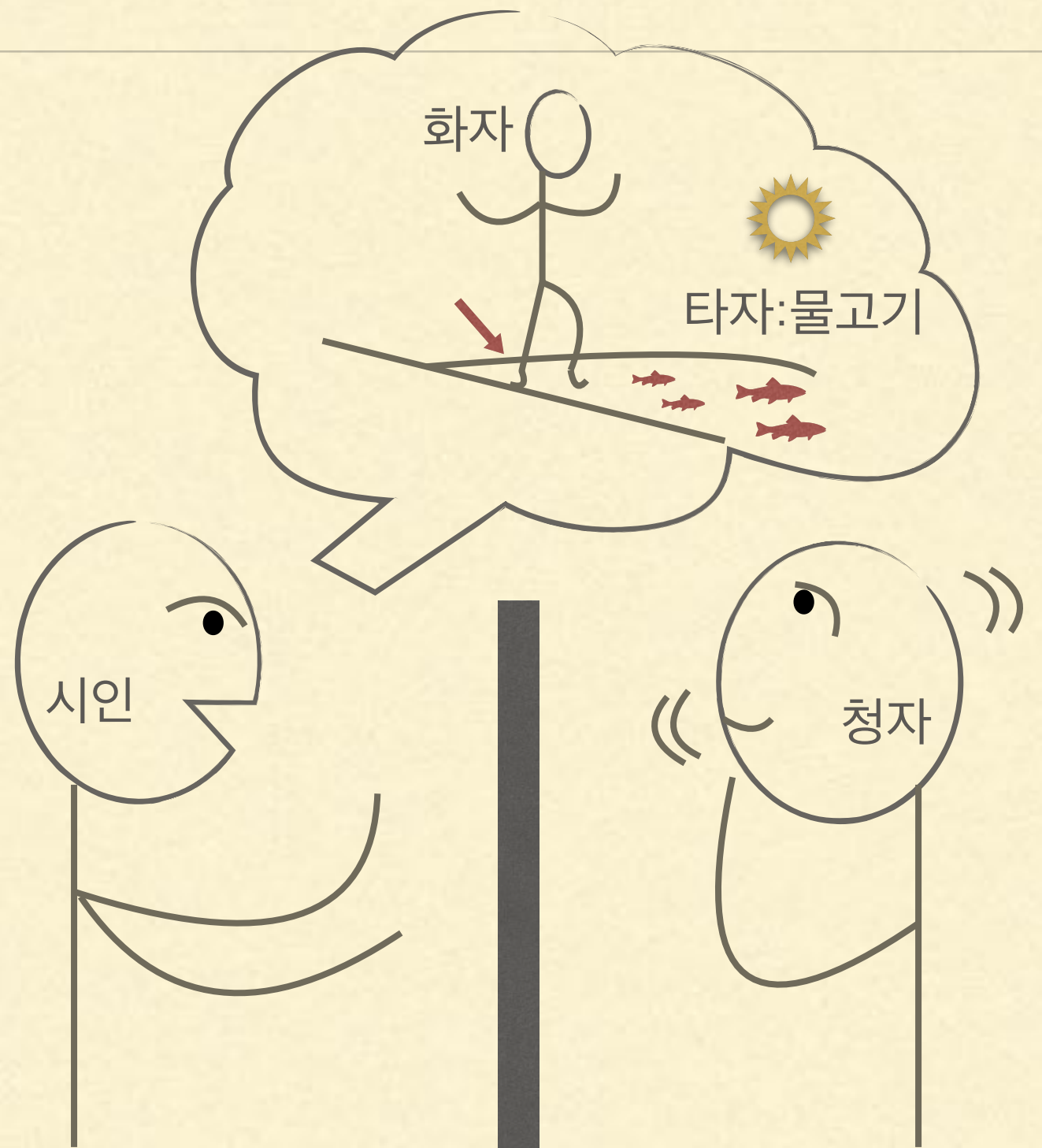
조금 깊은 물결 속

중치들 송송,

물길 따르고 있었다

먼 길 나서야 하는 길의 때,

맨발로 저들에게서 배웠다



# 시 분석

말하는 주체(담론)

때,  
김길녀

해질녘 여름 강에서 보았다

마른 땅 가까운 낮은 물결 속

치어들 총총,

조금 깊은 물결 속

중치들 송송,

물길 따르고 있었다

먼 길 나서야 하는 길의 때,

맨발로 저들에게서 배웠다

